

2015학년도 경북대학교 모의 논술(AAT)
인문사회계열 문제지

시 험 시 간	15:00 ~ 16:40 (100분)	
지원 희망학과(부)	학과(부, 전공)	감독위원 확인
고 교 명	고등학교	Ⓜ
성 명		

감독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 수험생 유의 사항 >

1. 문제지와 답안지에 지원 희망학과(부), 고등학교명,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
2. 문제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문제지와 답안지를 확인할 것
3. 답안지에 물음 번호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되, 반드시 주어진 밑줄 또는 원고지의 범위 안에 답안을 작성할 것(※ 밑줄 또는 원고지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함)
4. 답안의 작성은 흑·청색 필기구를 사용할 것(연필 사용 가능)
5. 문제지의 빈 공간을 연습지로 사용할 수 있음

[1]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자 민주주의란 전자 매체를 통하여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가리킨다. 최근 전자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어느 학자가 “나는 인터넷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부활을 보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과 더불어, 유권자의 선택이 정치인의 용모, 말씨, 사생활 등에 영향을 받는 이미지 정치의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비판적 전망도 동시에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전자 매체의 등장과 이용은 기존의 정치적 참여형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다수의 시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장을 형성할 경우, 시민의 정치의식과 현안문제에 대한 관심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나) 시민들의 높은 수준의 정치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엘리트주의의 시각은 계몽된 소수의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비록 전반적인 정치참여의 수준이 낮더라도, 계몽된 소수 시민의 참여와 선택이 더 현명한 결정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들이 보기에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잘 모르고 정책에 관심이 없으며, 흥미 위주의 사사로운 사안에 반응하는 부류들의 참여는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엘리트주의 시각은 그들이 옹호하는 계몽된 소수만의 참여가 가져오는 과소대표(過小代表)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투표에 참여하는 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자이거나 더 많이 교육받았거나 혹은 특정 지역 출신이거나 특정 피부색의 사람일 경우, 선거는 특정 지역, 피부색, 계층의 지역적인 목소리만을 위한 잔치가 되고 만다. 한마디로 계몽된 소수에 의한 선거는 그 자체로 편향될 수밖에 없고, 이는 국민 일반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사뭇 걸맞지 않게 된다.

1. (가)를 토대로 (나)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서술하시오. (50자 이내) [10점]

[2]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국의 한 시각장애인 언론학과 교수가 미식축구 중계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가지고 선수들의 인종을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는 사람들 앞에서 중계방송의 아나운서가 묘사하는 내용을 귀로만 듣고, 해당 선수가 백인인지 흑인인지를 정확하게 맞추었다. 사람들이 비결을 묻자, 그는 “백인 선수에 대한 칭찬은 ‘현명하고 지적으로 뛰어나다’로 고정돼 있고, 흑인 선수에 대한 칭찬은 ‘용감하고 육체적으로 뛰어나다’는 내용이 지배적이다.” 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보도행태가 인종차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계를 담당하는 아나운서는 “각 선수가 가진 장점을 있는 그대로 하나씩 예시하며 칭찬했는데, 그게 어떻게 차별이냐”고 반박했다. 여기에 대해 언론학과 교수는 “흑인 선수와 백인 선수를 다 같이 칭찬한 것은 맞다. 하지만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 중계는 미국

의 사회문화적 분위기속에서는 인종차별이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2. 위 사례에서 언론학과 교수가 아나운서의 중계를 인종차별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미국의 사회문화적 분위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시문의 문맥 속에서 추론하시오. (30자 이내) [10점]

[3]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만약 싸움이란 게 공격 정신이나 적극적인 방어 개념으로만 되어 있다면 석대와 싸움은 그날로 끝이었다. 그러나 불복종이나 비타협도 싸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면 내 외롭고 고단한 싸움은 그 뒤로도 두어 달은 더 이어진다. 어른들 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리석은 다수(多數) 혹은 비겁한 다수에 의해 짓밟힌 내 진실이 무슨 모진 한(恨)처럼 나를 버티 나가게 해준 것이었다.

이미 내 수단이 다하고 궁리가 막힌 게 다 드러난 셈이건만 신중한 석대는 그날 이후도 직접으로는 나와 싸움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 공격은 전보다 몇 갑절이나 더 집요하고 엄중했고, 따라서 내게는 그때부터 전보다 몇 갑절이나 더 괴롭고 고단한 학교생활이 시작되었다.

(중략)

나는 네 번째로 창틀에 올라가 다시 유리창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온몸에서 맥이 짝 빠져 손가락 하나 까닥하고 싶지 않았다. 녀 나간 사람처럼 멀거니 뒷문 술술 사이로 사라지는 석대와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슬그머니 창틀에 주저앉았다. 이미 합격 불합격은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석대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 안 이상 헛수고를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어느덧 해는 서편으로 누엿해지고 교정에는 인적이 드물어졌다. 아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띄엄띄엄 퇴근하는 선생님들의 발자국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릴 뿐이었다. 나는 그 사이 몇 번인가 모든 걸 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가 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미 모든 저항을 포기한 뒤이긴 해도 그냥 참아 넘기기에는 너무 심한 횡포였다. 그러나 다음날 석대의 말만 듣고 여럿 앞에서 나를 불러 내 매질할 담임선생과 또 그걸 고소하게 바라볼 석대의 얼굴을 떠올리자 그런 충동은 이내 잦아들었다. 대신 좀 비굴하기는 하지만 아이답지 않게 **고급한 책략**을 생각해 내면서 오히려 석대가 더 늦게 오기를 바라게 되었다. 내가 괴로워하는 걸 보고 싶다면 보여주마. 네가 돌아오면 눈물이라도 흘리며 괴로워해 주마. 그렇게라도 네 앙심을 풀 수 있다면 - 그게 내가 생각해 낸 책략이었다.

석대와 아이들이 다시 뒷문 께에 나타난 것은 교정 서쪽의 아름답디 히말라야시다 그들이 운동장을 온전히 가로지른 뒤였다. 그런데 그게 어찌된 일이었을까. 맥을 감았는지 젖은 머리칼들을 반짝이며 왈작하게 운동장으로 들어서는 그들을 보자, 별로 애 쓸 것도 없이 내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얼마 전의 책략 따위는 까맣게 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짜 눈물이었다.

얼핏 들으면 느닷없고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냉정히 따져 보면 그때의 그 눈물을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저항을 포기한 영혼, 미움을 잃어버린 정신에게서 괴로움이 짜낼 수 있는 것은 슬픔의 정조(情調)뿐이다. 나는 그때 아마도 스스로의 무력함이 슬퍼서 울었고, 그 외로움이 슬퍼서 울었을 것이다.

「어이, 한병태.」

그 갑작스런 눈물은 견잡을 수 없이 흐느낌으로 변해 내가 창틀을 붙들고 울고 있을 때 가까운 곳에서 그런 소리가 들렸다. 눈물을 씻고 그쪽을 보니 아이들을 저만치 떼어놓고 석대 혼자 창틀 아래로 와서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전에 없이 너그럽고 - 신비스러워 되기까지 하는 얼굴이었다.

「이제 돌아가도 좋아. 유리창 청소 합격.」

샘솟는 내 눈물로 이내 뿌연게 흐려진 그 얼굴 쪽에서 다시 그런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짐작컨대 그는 내 눈물의 본질을 꿰뚫어보았음에 틀림이 없다. 거기서 이제는 결코 뒤집힐 리 없는 자신의 승리를 확인하고 나를 외롭고 고단한 싸움에서 풀어 준 것이었다. 그러나 내게는 그 너그러움이 오직 감격스러울 뿐이었다. 이튿날 나는 그 감격을 아끼던 샤프 펜슬로 그에게 나타냈다.

너무도 허망하게 끝난 싸움이고 또한 그만큼 어이없이 시작된 굴종이었지만, 그 **굴종의 열매**는 달았다. 오래고 끈질긴 반항 끝에 이루어진 굴종의 열매라 특히 더 달았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내가 그의 질서 안으로 편입된 게 확인되면서 석대의 은혜는 폭포처럼 쏟아졌다.

[A]

석대가 맨 먼저 내게 베푼 것은 주먹 싸움의 서열을 바로잡아 준 것이었다. 그의 그늘에서 부당하게 내 순위를 가로채 간 녀석들 가운데 몇몇은 호된 값을 치르고 내게 그 순위를 내놓아야 했다. 석대는 그새 나를 알볼 대로 알보게 된 아이들이 제 힘도 헤아려 보지 않고 내게 함부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걸 보면 느닷없이 녀석을 으박질렀다.

「야. 너 정말 병태에게 이겨? 싸워서 이길 자신 있느냐구?」

그리고는 다시 내게 넌지시 권하듯 말했다. 「병태, 너 다시 한 번 안 싸워 볼래? 저런 병신 같은 새끼한테 영영 죽어지낼 작정이야?」

그러면 거기 힘을 얻은 나는 그가 마련해 준 공정한 링에서 싸움을 벌였고, 그 동안 멧힌 양심은 내 주먹을 한층 맵게 해주어 번번이 통쾌한 승리를 내게 안겨 주었다. 그 기세에 겁먹은 아이들은 싸워 보지도 않고 손을 들었으며, 그 바람에 나는 몇 번 싸우지도 않고 원래의 내 주먹 서열보다도 오히려 두세 등급 높은 열두 번째로 올라설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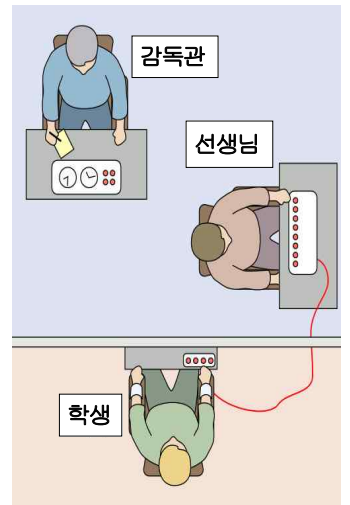
3-1. 등장인물 '나'의 대상에 대한 태도변화를 암시하는 핵심어구를 제시문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극적 전환의 계기를 나타내는 ㉠과, 그 내포된 의미인 ㉡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시오. (20자 이내) [㉠, ㉡ 각 9점, 총 18점]

지문에서 찾은 핵심어구	내포된 의미
외롭고 고단한 싸움	불복종이나 비타협으로서의 저항
↓	↓
고급한 책략	너무 심한 횡포에 대한 저항
↓	↓
㉠	㉡
↓	↓
굴종의 열매	부조리한 질서 안으로의 편입

3-2. <보기>는 심리학에서 잘 알려진 '복종 실험'에 관한 글이다. 이것을 유추하여 제시문 [A]에 숨겨진 주제를 파악하는 <감상문>을 쓸 때, 빈칸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쓰시오. (각기 2-3자 내외의 한 단어) [㉠~㉢ 각 3점, 총 12점]

<보기>

칸막이 뒤에는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이 문제를 풀고 있고, '감독관'은 '선생님' 역할을 맡은 실험 참가자에게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충격을 16V씩 올리라고 지시한다. 이때, '감독관'과 '학생'은 사전에 시나리오대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전기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직 '선생님'만 이 실험의 목적과 내용을 모르고 있다.



'선생님' 역할을 맡은 사람은 지시받은 대로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전기충격의 수준을 올렸고, 그 때마다 '학생'은 괴로운 척 연극을 했다.

그랬더니 참가자들은 대부분 몇 번 정도 전기충격을 주고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감독관을 돌아보며 얘기했다. 그러나 감독관이 "그 정도의 전기로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했다. 그 결과 참가자의 무려 65%(40명 중 26명)이 450V에 해당하는 전기충격에 도달할 때까지 버튼을 계속 눌렀다. 상식적으로 450V의 전기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데도 말이다.

<감상문>

등장인물 '엄석대'는 절대 권력을 보여주는 인물로서, '복종 실험'에서 ㉠에 해당하며, '나(한병태)'는 그러한 권력의 비호 아래 었드려 있는 인물로, '복종 실험'에서 ㉡에 해당한다. 이 글 전체에서 보면 '나'는 실험에서처럼 그러한 권력이 부조리하다고 느끼고 ㉢ 하기도 했으나, [A]부분에서와 같이 곧 ㉣ 하고 만다.

이를 통해 이 부분은 절대 권력과 부조리한 현실에 이기적으로 적응하는 소시민적 근성을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4]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세상 모든 사회는 스스로를 우주의 중심에 두고 색깔 렌즈를 통해 다른 문화를 바라보려는 경향이 있다. 서구 문화의 영향력이 유럽과 북미 대륙에서 본격적으로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서구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경험을 일반화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물론 서구 문화에는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이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공동의 가치가 담겨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서구인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유일한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 다른 문화에 대해 우월성을 느끼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과 같거나 자신들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획일적인 서구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극적인 일이다. 각각의 다양한 문화들이 해체되면서 수 세기에 걸쳐 축적된 값진 지식들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수많은 민족들이 가치 갈등으로 인해 그들의 정체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결국 사회가 붕괴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너무나 널리 그리고 강력하게 전파되고 있는 서구 문화를 접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것이 가진 문제를 성찰할 객관적인 시각조차 가지지 못한 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라다크(인도의 북쪽 티베트 고원지역에 있는 작은 오지의 마을)는 서구 문화가 갑작스럽게 유입되면서 오래전부터 유지되고 있던 공동체의 끈끈한 결속력과 자연친화적인 삶의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다. 심지어 많은 라다크 젊은이들 중에는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문화를 껴안으려 몸부림치고 있다. 그들은 현대화의 상징이 되는 물건을 향해 앞다투어 몰려든다. 선글라스와 휴대폰, 몸에 짝 끼는 청바지들이 그것들인데, 그들이 청바지를 입는 이유는 그것이 매력적이거나 편안한 옷이어서가 아니라 현대화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
4. 위의 제시문에서 문제가 되는 서구인들의 의식과 라다크 젊은이들의 모습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를 아래 사자성어의 의미와 관련지어 기술하십시오. (250자 이내) [30점]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음
구동존이(求同存異): 같은 것을 향해 나아가지만 차이는 남겨둠

[5]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진화란 지구상의 생물 종(種)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는 고생물학적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진화설 중 널리 알려진 것은 다윈의 자연선택과 멘델의 유전학이 결합된 ‘현대 종합설’이다. 현대 종합설은 유전자의 우연적이며 무작위적인 변이와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 이론으로 생물이 환경에 반응하여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이에 따르면, 종(種)이 변화하는 이유는 환경이 직접 그 생물에게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생물이 우연히 어떤 특성이나 능력을 타고나서, 자연이 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연에서 살아남게 되고, 또한 이렇게 살아남은 생물이 그렇지 않은 생물에 비해 더 많은 자손을

남기게 됨으로써 서서히 기존의 생물종은 사라지고 새로운 종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진화는 생물 스스로의 제어를 벗어난 내부 조건(우연적인 유전자의 돌연변이)과 외부 조건(환경에 의한 자연선택)에 따른 수동적인 결과이다.

(나) 진화가 유전자의 우연한 변이로 일어났다면, 어떤 종이 출현한 뒤 다른 종이 나타나기 전, 그 사이에 종의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연속적인 화석 증거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의 종에 대한 화석 기록들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변화 없음을 보여준다. 즉 화석 기록을 보면, 그들의 모습은 처음 나타났을 때와 사라질 때의 모습이 거의 같다. 다시 말해 과도기적인 중간 형태를 발견할 수 없는데, 이는 종의 진화 역사를 설명하는 화석 기록에서는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자, 이제까지 살았던 종들의 일반적 특징이다. 따라서 화석 기록에 따르면 하나의 종은 그 조상의 우연한 유전적 변이에 의해 서서히 변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형태를 갖춘 새로운 종이 갑자기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

(다) 유전자의 우연한 변이와 자연선택은 생물의 유전이 환경에 반응하여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하지만 생물의 유전이 생물의 활동과 환경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가 있다. 생물은 DNA 염기서열의 변화 없이도, 유전자의 발현이 변경되고 그 결과가 유전될 수 있다. 이를 후성유전이라고 하는데, 획득형질이 유전된다는 라마르크식 유전의 부활로도 볼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유전자의 발현은 DNA와 같이 미리 결정된 정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가에 따라라도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 과정이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후성적으로 얻어진 형질은 다음 세대로 유전되기도 한다. 이러한 후성유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는 음식, 운동, 스트레스, 습관, 오염 등이 있다.

.....
5. 아래 문장은 (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나)와 (다)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빈칸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완성하십시오. [각 9점, 총 18점]

(나)는 ㉠ (40자 이내) 는 근거를 들어 (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으며, (다)는 ㉡ (60자 이내) 는 근거를 들어 (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6] 아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과학은 세계를 정신적으로 파악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는 인간의 실천적이며 사회적인 활동이다. 과학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사물의 성격과 구조를 탐구하고 사물의 현상에 속한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을 설명하는 이론체계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이론체계는 종교나 예술과 달리 인과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여 성립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학의 힘은 경험적 검증을 거친 법칙적이고 객관적 진리라는 데 있다. 인간은 과학의 덕택으로 자연과 사회의 법칙을 인식하고 이용할 뿐만 아니라 장래를 예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과학은 인류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서 오늘날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척도가 되었다.

그러나 과학의 이론체계가 인간의 삶에서 생겨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학을 올바르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며 법칙적이라는 이론적 특성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과학은 과학 자신에 대해 알지 못한다. 과학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기초하고 있고 그것이 형성되는 생활세계를 밝혀야 한다. 과학적 이론 자체는 이미 과학자의 기대와 추측을 통해 성립된 것이며, 이때 과학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지식 집단의 전통과 성향을 가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과학적 인식은 그러한 지식이 요구되는 상황과 연구를 위해 경제적이고 물질적 수단이 제공되는 배경과 연관되어 있다. 과학적 이론이 성립되는 과정에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환경 속에 있는 과학자의 주관성이 개입되기 쉬우며, 나아가 그렇게 성립된 과학은 어떤 한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위해 편파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성립된 과학적 이론체계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수정이 가능한 믿음의 체계로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과학자의 연구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용한 사람들의 잘못이지 과학자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식칼로 사람을 죽인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식칼을 제조한 사람에게 살인 사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이론의 오용에 의한 결과는 그 이론을 연구한 과학자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즉, 윤리적 가치는 그 기술의 사용자에게만 한정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원자 폭탄 제조의 책임을 맡았던 오펜하이머는 과학자는 진리를 공표할 책임만을 가질 뿐이고 과학의 이용과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는 과학자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말에는 과학이 객관적이며 가치중립적이라는 생각이 담겨있다. 과학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이 시대나 적용 대상이 달라지더라도 변함없이 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과학이 가치중립적이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나 법칙이 선하다거나 옳다는 등의 가치판단과 무관한 것임을 의미한다.

6-1. 제시문 (가)를 참고하여 아래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40자 이내) [10점]

“과학적 인식도 ‘세계 안에 있는 인간’의 한 존재방식이다.”
이 말의 뜻은 _____

6-2. 제시문 (나)의 요지를 아래 형식으로 요약하십시오. (25자 이내) [10점]

과학의 오용에 대해서는 과학자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_____

[7] 아래는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대비되는 두 가지 견해이다.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종교의 자유나 사상의 자유와 중첩되지 않는 양심(良心)의 자유는 각 개인이 내리는 윤리적 판단 영역에 적용된다. 이때의 양심은 윤리적 선악(善惡)을 판단하고 선을 선택하는 인간의 천부적 심성을 가리키며, 따라서 학문과 예술의 문제에 관

해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양심의 영역에서 제외된다. 윤리적 선악과 연결되지 않는 정치사상, 신조, 종교적 교리 등과 관련된 정신작용 역시 양심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부의 국법질서가 악이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을 개인이 반대로 선이라고 판단하여 강행을 선택하는 경우, 또는 일부의 국법질서가 선이라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것을 개인이 악이라고 판단하여 거부를 결단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여기서 선택이나 결단은 모두 도덕적 선악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런 나쁜 짓을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 또는 ‘이 일을 못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할 수 있는,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정체성에 관한 확신에 의해 내려진 선택과 결단이다.

(나)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선악 판단의 영역보다 넓게 적용된다. 양심의 자유를 헌법적 가치로 인정한다는 것은 내심(內心)의 자유에 대해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인류발전의 필수요소인 정신활동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양심의 자유에서 양심은 세계관, 주의, 신조와 연관된 정신작용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국가의 세계관적 중립을 전제한다. 국가는 특정 세계관을 개인에게 강요할 수 없다. 국가는 개인의 내면적 세계관에 대해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관용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양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체제를 선호하는 개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장된다.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의 추구는 억압적이고 차별적인 지배를 불식하는 것으로 각 개인의 의견과 행동은 그것이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관용되어야 한다. 설령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자의 양심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어 공익에 적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7. 다음은 ‘양심’의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나)의 밑줄 친 부분인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자의 양심’이 어떻게 양심의 자유가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한 글이다. 제시문을 참고하여 ㉠~㉣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 각 8점, 총 32점]

(가)에서 ‘양심’은 ㉠ (35자 이내) (을)를 뜻하고,
(나)에서 ‘양심’은 ㉡ (35자 이내) (을)를 뜻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자의 양심’은 (가)에 의하면 ㉢ (25자 이내) (고/며), (나)에 의하면 ㉣ (25자 이내)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심의 자유가 적용되는 영역에 해당한다.